



덜 오른 종목, 그 이유가 있다? 있나?

1. 6월 들어 심해진 눈치보기

- 6월에도 KOSPI 지수는 상승 중
- 5월보다 거래대금도 많아졌지만, 수급 주체별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음
-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도주라 불릴만한 종목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
- 유니버스 200종목 가운데 6월 상승 종목은 83개, 하락 종목은 110개

2. 수익률 키맞추기. 안 좋은 것 거르기. 더 많이 발 담그기

- 5~6월 증시 특징은 소외주 반등과 기존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
- 상승피로, Valuation 부담이라는 말로는 기존 주도주의 부진 설명 불가능
- 이유를 찾기보다는 현상에 집중할 필요
- Valuation을 무시한 상승을 보여왔던 지난 1년과는 달라진 모습
- 고밸류 종목을 피하고 폭넓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

3. 아직도 20년 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

- 소외주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할 시점
- 뜬금포가 어디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소외주의 흐름 달라짐
- 코로나 이전과의 비교, 악재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

1. 6월 들어 심해진 눈치보기

전일 KOSPI 지수는 하락했지만, 6월 KOSPI 지수는 상승중이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6/10)했고, 5월보다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전일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6월 들어 개인, 기관, 외국인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5월에만 8.4조원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의 매도강도는 약해졌고, 5월까지 50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의 매수세도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어느 매수주체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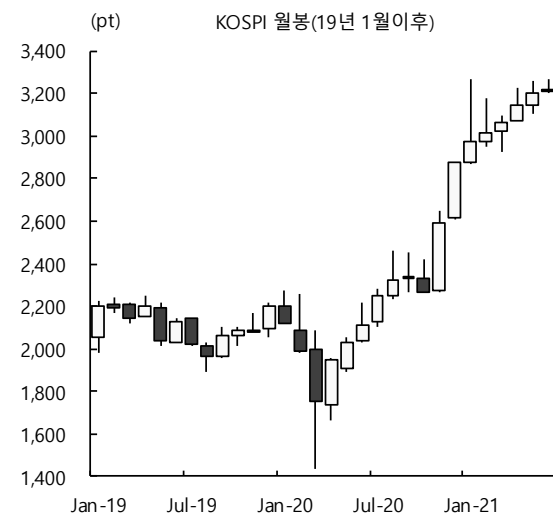
눈치보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도주라 불릴만한 종목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으로 보면, 6월 상승 종목은 83개, 하락 종목은 110개로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다. 5%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27개에 불과하다.

[차트1] 6월 들어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수급 주체의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음

기간	개인	외국인	기관
21년 1월	223,384	-52,154	-173,826
2월	84,381	-20,083	-53,503
3월	69,402	-12,160	-55,920
4월	58,355	3,857	-58,472
5월	67,296	-84,910	19,912
6월	2,796	-3,248	772
21년 전체	505,614	-168,699	-321,037

주: KOSPI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지수는 6월에도 상승 중이지만,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익률 키맞추기, 안 좋은 것 거르기, 더 많이 벌 담그기

5월~6월의 증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외주의 반등과 기존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이다. 실제로, 5~6월 KOSPI 지수는 증가 기준 고점을 경신했지만, 5~6월 신고가(18년 이후)가 경신했던 종목은 38개 종목에 불과하다. 최근 상승 종목을 아우르는 말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리오프닝, 레임덕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둘 모두 그 동안 부진을 겪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기존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은 상승에 대한 피로, Valuation 부담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KOSPI 지수가 2,600pt를 돌파했던 작년 11월이나 3,000pt를 돌파했던 1월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다. 그 당시에도 피로감을 논할 수 있었고, Valuation 부담을 논할 수 있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힘들다.

지금은 답을 찾고 이유를 찾기보다는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외주의 뜬금포, 수익률 키맞추기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Valuation을 무시한 상승을 보여왔던 지난 1년간의 증시와는 다른 모습이다. 종목을 따라가기 보다는 고 밸류 종목을 피한 가운데, 폭넓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차트3] 지수의 고점을 경신했던 5~6월

고점을 경신했던 종목의 개수는 많지 않았다

구분		종목 수
2018년 (78종목)	상반기	69
	하반기	9
2019년 (17종목)	상반기	15
	하반기	2
2020년 (19종목)	상반기	3
	하반기	16
2021년 (86종목)	1월	20
	2월	13
	3월	2
	4월	13
	5월	25
	6월	13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4월 이후 수익률 상위 종목 중에는

작년 이후 부진했던 종목이 다수 발견된다

코드	종목	업종	4월말 이후	20년연초 ~4월말
A041510	에스엠	미디어/엔터	46.9	-21.5
A051600	한전KPS	전기	33.7	-13.3
A005610	SPC삼립	음식료	26.3	-19.4
A079160	CJ CGV	미디어/엔터	22.2	-16.7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건설	22.2	-9.6
A017800	현대엘리베이	기계	22.1	-0.5
A282330	BGF리테일	소매/유통	20.9	-9.7
A032640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	20.5	-7.0
A081660	휠라홀딩스	섬유/의복	19.7	-14.0
A013890	지누스	내구소비재	19.0	-1.6
A010950	S-Oil	정유	18.8	-8.6
A001740	SK네트웍스	상사	18.3	-10.8
A089590	제주항공	항공	16.0	-1.4
A008770	호텔신라	호텔/레저	15.5	-4.7

주: 유니버스 200종목 기준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아직도 20년 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

아직도 2020년 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있다. 최근 소외주들의 흐름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한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뜬금포는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유니버스 200종목 가운데, 현재 주가가 20년 초 주가보다 낮은 종목은 크게 1) 카지노주, 2) 손해보험주, 3) 종목별 개별이슈(증자, 합병 등), 4) 기타이유 의 4가지 범주로 나뉘볼 수 있다. 카지노, 손해보험의 경우는 유니버스 내 전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논외로 보더라도 그 외 종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에 미치는 악재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은행 업종을 예로 들면, 기업은행,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는 20년 초 대비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KB금융,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상승한 상태다. 그 외에도 업종 내 타 종목 대비 Underperform 중인 종목이 다수 스크린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주가가 부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KOSPI 지수가 2,200pt 에서 3,200pt로 상승하는 동안 하락을 경험할 만큼 가혹한 이유였는지, 업종 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더 소외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트5] 아직도 20년 초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 1) 카지노주, 2) 손해보험주, 3) 종목별 개별이슈, 4) 그 외 이유

업종 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악재의 정도가 어느정도 었는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코드	종목	업종	20년초 대비	YTD	4/30일 대비	코드	종목	업종	20년초 대비	YTD	4/30일 대비
A001450	현대해상	손해보험	-10.4	6.2	-0.8	A033780	KT&G	음식료	-10.1	1.4	2.3
A000810	삼성화재	손해보험	-9.9	17.1	10.9	A007310	오뚜기	음식료	-2.0	-5.9	-2.2
A005830	DB손해보험	손해보험	-4.0	14.7	2.6	A010140	삼성중공업	조선	-3.0	0.1	-6.0
A000060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2.0	19.9	-12.3	A021240	코웨이	내구소비재	-15.9	7.7	17.0
A024110	기업은행	은행	-8.1	22.7	12.0	A002790	아모레G	화장품	-6.9	40.3	4.8
A055550	신한지주	은행	-2.8	31.5	5.4	A009420	한올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	-42.4	-44.3	-9.1
A316140	우리금융지주	은행	-0.4	18.7	7.9	A091700	파트론	전자/부품	-20.8	-6.7	-1.9
A114090	GKL	호텔/레저	-4.6	11.1	13.1	A056190	에스에프에이	디스플레이	-11.0	6.6	-1.8
A035250	강원랜드	호텔/레저	-3.9	21.1	12.5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SW/SI	-4.4	4.2	1.6
A034230	파라다이스	호텔/레저	-2.5	25.8	6.9	A214320	이노션	미디어/엔터	-7.2	10.4	9.8
A023530	롯데쇼핑	소매/유통	-9.6	19.5	-1.2	A015760	한국전력	전기	-5.8	-4.4	10.8
A007070	GS리테일	소매/유통	-3.9	9.4	5.3	A078930	GS	지주회사	-7.5	27.2	10.9

주: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 업종별 종목 수 많은 순 정렬

자료: Data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6월 들어 수급 주체의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음

기간	개인	외국인	기관
21년 1월	223,384	-52,154	-173,826
2월	84,381	-20,083	-53,503
3월	69,402	-12,160	-55,920
4월	58,355	3,857	-58,472
5월	67,296	-84,910	19,912
6월	2,796	-3,248	772
21년 전체	505,614	-168,699	-321,037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수의 고점을 경신한 5~6월, 고점을 경신한 종목의 개수는 많지 않았다

구분		종목 수
2018년 (78종목)	상반기	69
	하반기	9
2019년 (17종목)	상반기	15
	하반기	2
2020년 (19종목)	상반기	3
	하반기	16
2021년 (86종목)	1~2월	33
	3~4월	15
	5~6월	3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직도 20년 초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 코로나 이전과 비교, 냉정한 판단이 필요

코드	종목	업종	20년초대비	YTD	4/30일대비
A024110	기업은행	은행	-8.1	22.7	4.8
A055550	신한지주	은행	-2.8	31.5	-9.1
A316140	우리금융지주	은행	-0.4	18.7	-1.9
A023530	롯데쇼핑	소매/유통	-9.6	19.5	-1.2
A033780	KT&G	음식료	-10.1	1.4	2.3
A007310	오뚜기	음식료	-2.0	-5.9	-2.2
A021240	코웨이	내구소비재	-15.9	7.7	17.0
A002790	아모레G	화장품	-6.9	40.3	4.8
A214320	이노션	미디어/엔터	-7.2	10.4	9.8
A015760	한국전력	전기	-5.8	-4.4	10.8
A078930	GS	지주회사	-7.5	27.2	10.9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